

## 한국과 중국 전통 문양 비교 연구

— 조선시대와 명나라 시대 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traditional graphic patterns between Chinese and Korea  
— Based on the period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Ming Dynasty —

이설정, 송만용\*, 이창근\*\*  
동서대학교, 디자인&IT전문대학원

Lixuejing, Song Man-Yong\*, Lee Chang-Gun\*\*  
Dongseo University, Design & IT Graduate School

### 요약

한국 조선시대와 중국 명나라 가구들에 표출된 문양들을 문헌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심미적이며 객관적 조형 분석 틀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현대적 콘텐츠 디자인에 응용 가능한 학문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걸맞게 문화와 경제적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양을 어떻게 디자인 요소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여건 마련이 선행된 연후에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활성화의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 Abstract

Through the analysis and the comparison of the future patterns between the China Ming dynasty and the Korea Joseon dynasty, we try to search for the cultural value of the appreciation possibility to the concept design by the aesthetic and objective tools in this paper.

For making cultural and economic mind, cultural product as well-mated as 21st century is how traditional pattern might design, but how fashionable design in modern is attracted.

As making and providing those mind, it is observed what the strategy of program activation could be. It is to be desired that is provided the use of product as traditional pattern of today on the traditional pattern of today based on the mentioned above. Hence, it is looked to activation in the modern pattern for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

## I. 서론

모든 문화의 창조는 전통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대가 단절된 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상의 생존을 위하여 엮어온 모든 문화양식은 민속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되었고 그것을 모태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발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겠다.

장식미술이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통문양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자연현상을 모방하면서도 단순미와 추고와는 다른 관념에 도형화 되어있다. 특히 가구에서의 문양은 전통사회에서의 생활의식, 습관, 신앙, 사상 등이 그 바탕이 되고 있어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고유의 민족문화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찾고 타문화와 차별되는 독창성을 부각시킨 고유 디자인의 개발로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비교디자인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동일한 자연사물이나 동식물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사용의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 조선시대와 중국 명나라 가구들에 표출된 문양들을 문헌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심미적이며 객관적 조형 분석 틀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현대적 콘텐츠디자인, 특히 CI디자인에 응용 가능한 학문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비교디자인적 기초 연구

본 소고의 목적은 명나라와 조선의 가구디자인에서 나타난 문양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비교 디자인적 연구이다. 이러한 타 문화 간의 비교 연구는 80년대 들어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대부분은 자국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

이다. 이 얘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 연구하는 목적인 문화 간에 동일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면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고에서 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비교디자인적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연구로써 비교미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조형예술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비교예술학적 시도는 오스트리아의 미술사학자 D. 프라이 Dagobert Frey의 「비교예술학의 기초 Grundlegung zu einer vergleichenden Kunstwissenschaft, 1949」이다. 이러한 비교미술학 vergleichenden Kunstwissenschaft에서 비교의 출발점은 당연히 양식이다. 이렇게 양식의 개념을 고찰하는 것은 미술사학을 비롯한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특히 프라이는 동일성과 차이성에 기인한 양식의 비교에서 각각의 문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 정체성은 차이에서 나오는데 모든 차이는 비교 관찰에 의해 구분되기 때문이다.”[1]

그리하여 D. 프라이는 “한편으로는 동일성과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친근성, 상호관계,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문화군에의 종속성의 여러 지점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특수성, 상호 긴장관계, 독자성, 유일성 등을 설명하는 것이 비교예술학의 과제”[2]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비교미술학적 방법론은 우리가 사용한 비교디자인적 방법론에서 좋은 토대가 된다. 비교미술학은 우리 각자에게 특수 영역의 장벽을 초월하는 안목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사회에서의 모든 예술, 모든 미적 체험, 그리고 모든 예술의 가치에 관해 반목과 무시가 아닌 보편타당한 근거가 성립될 것이다. 때문에 한 지역의 예술창조물과 다른 지역의 문화적 창조물을 비교해야, 비로소 개개의 것이 그것 자체에 있어서 또한 동시에 보다 큰 문화적 제 연관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문명은 인간 TKFAD에 대한 어떤 주관적 의식의 지적 대상이기 이전에 인간이 걸어온 삶의 역사이며 발전과 창조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본 소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명과 조선의 가구의 문양에서 비교디자인적 연구의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전통문양의 수사학

우리가 문양에 주목하는 것은 동일한 문양안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숨어 있는 하나의 기호라는 점이다. 인간은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의사소통을 하여 왔다. 이러한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이 생활도구 특히 가구에 적용된 것이 문양이다. 그래서 “문양은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사이에서 약속된 부호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3]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양은 대부분 수복사상과 벽사사상 등 종교적 상징체계인 것이다. 중국의 전통 문양은 주나라에서 원, 명, 청국 시대를 거쳐 인민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진보 발전되어 여타의 국가에 비해 수많은 유물을 보존해 오고 있다. 민속예술인 전지 문양에서 길상문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또한 중국의 문화는 명 시대에 문화가 급진적으로 발달한다. 반면 조선은 중국의 영향으로 문양이 형성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문양의 특징을 오소동의 『중국길상도안』에서 말하는 “집체표상”적 성격이 있다. 즉 한 작품이 대대로 되풀이되고 상투화되어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집체표상으로 상징화된 도상을 사용하다보니 일반 대중의 생활욕구를 담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문양적 개체는 어떤 신비한 힘을 갖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신앙과 풍속이 이 형상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통문양의 배후에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외경심이 깃들여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자연의 생태를 인간중심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인간중심주의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약된 현실을 벗어나 보다 풍요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는 이상주의 정신과 그 이상적인 세계와 가치 기준을 옛것에서 찾으려는 복고주의 정신이 문양의 배후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4]

이러한 문양이 관점에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작가의 개성과 창의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전수받은 대로의 가치만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점은 중국과 한국의 문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바로 이점이 본 소고에서 명과 조선의 가구문양을 동일성의 위치에서 차이성을 찾을 수 있는 비교미술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구야말로 가장 우리 삶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담아내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 3. 중한 가구 문양의 비교와 현대 디자인적 활용

현대 문화컨텐츠(Content)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창의성과 문화성의 결합인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조력에 더하여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발전된 멀티미디어 기술에 의해 문화컨텐츠는 문화·과학·경제 산업이라는 개별적 관점의 영역구분을 벗어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적인 통합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학술적, 유물적 차원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조명하고 창조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들을 찾아내 고유한 디자

인 양식으로 풀어내는 문화적 계승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명과 조선의 가구디자인에서 나타난 문양의 가치와 디자인적 활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비 문양	의미	디자인 활용
중국		고상한 문화의 상징. 행복, 자유, 애정의 상징 至善至美	 나비 자수 옷가게
한국		아름답고, 장수를 의미. 나비의 상징관은 장자의 호접몽과 관련.	 sk회사 LOGO

	용 문양	의미	디자인 활용
중국		권위를 대표 존귀, 신성興云作雨, 降伏妖魔	 용락대 옷가게
한국		생명의 모태 절제적 권리 군왕, 지위의 상징. 欲知未來	 웅비하는 두 마리의 용을 결합시킨 쌍용건설의 심벌은 태극 음양의 조화를 상징

	연꽃 문양	의미	디자인 활용
중국		불교의 주요한 상징 吉祥坐	 차이나 유니콤 (모든 것이 자유롭게 통한다는 뜻)
한국		連生貴子	 연꽃 중앙 사물

	대나무 문양	의미	디자인 활용
중국		장수, 행복 진리를 상징.	 베개 포장.
한국		공현, 봉사, 축하의 상징	 죽 학당

	잉어 문양	의미	디자인 활용
중국		年年有余	 중국안휘성 TV LOGO
한국		효자도, 약리도, 등용문. 잉어는 효행과 자손 번창의 의미.	 UNIVERSIADE GWANGJU 2013 2013년 universiade gwangju 포스터

### III. 결 론

문양은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는 인류가 생활을 해오면서 개인의 소유물을 표시하거나 장식을 하거나 또는 언어대신 문자화하거나 종교적으로 감사와 뜻으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양은 한 민족 문화의 소산으로서 각 시대 대중들의 생활 풍습이다. 이는 곧 그 나라의 문화와 직결하며 국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문화와 역사는 한국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옛날부

터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주변국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볼 가피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학자들 간에도 중국을 모범으로 한 사대주의 사상이 형성될 정도인 것은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중국이었던 지리적 조건이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양을 이용한 문화컨텐츠로써 디자인화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전통적인 것과 색채에서 아직 많은 부분을 따르고 있는 반면 한국의 디자인은 글로벌 마케팅의 관점에 의하여 영문표기에 주안을 두어 전통문양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현대의 문양은 과거의 것을 복사하기보다는 더욱 계승 발전시켜 순수한 정립하여 문화 컨텐츠 적 활용 가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 참고 문헌 ■

- [1] Dagobert Frey, Grundlegung zu einer vergleichenden Kunstwissenschaft, Margarete Friedrich Rohrer verlag, Innsbruck, Wien, 1949, S.5,
- [2] Dagobert Frey(1949), Ebd
- [3]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7, p.13
- [4] Ibid, p.19
- [5] 한중 전통문양의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Patterns and The Chinese Patterns-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Lucky Physiognomy-) 신민 (韓國工藝論義, Vo1,4 No,2,[2001])
- [6] 韓國의 傳統刺繡 紋樣의 象征性 (Symbolical mplic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Patterns)崔英淑 (論文集, Vo1,18 No-[1982])